

선박펀드 7월에 10개 펀드가 청약공모

공모총액 558억원, 연간 5.9% 배당수익

부동산펀드에 이어 선박펀드 붐 일어

선박펀드가 7월에 본격적인 공모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펀드는 지난해 3월 국내 처음 소개된 뒤 현재 운용중인 펀드는 모두 18개이며, 이미 2조원 이상 팔렸다. 청약경쟁률은 보통 20대1을 넘었다. 배당수익률은 8.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7월에만 10개의 펀드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공모 총액은 558억원에 이른다. 7월 6일부터 7일까지 95억원을 공모한 '동북아15호'는 컨테이너선에 투자하는 펀드로 8년 만기에 연간 5.9%의 배당수익을 3개월에 한번씩 현금으로 배당한다.

최소 청약금은 100주(액면가 5000원), 50만원이다. 이 펀드는 현대증권과 동양종합금융증권에 서만 판매한다.

선박펀드는 선박 가격의 80% 정도를 해운사와 금융기관이 맡고 나머지 자금을 일반 투자자들이 공급, 선박을 소유하는 개념의 금융상품이다.

이 선박을 선박운항사에 임대한 뒤 이 운항사로부터 용선료를 받아 수익을 남기는 구조다. 투자 대상이 되는 선박의 종류는 유조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이다.

선박펀드의 장점은 주식형펀드나 부동산펀드에 비해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으나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오는 2008년까지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것도 장점이다. 만기일이 길고 중도환매가 불가능하지만 주권이 증시에 상장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선박펀드는 세계 혜택을 감안하면 연 7.5~7.8%의 고수익 채권에 투자한 효과가 있다"면서 3개월마다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노후 생활을 기대하는 장기투자자에 알맞다고 말했다.

해기사 면허증 갱신일자 사전에 안내 만료 6개월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해양수산부는 7월4일부터 해양수산 고객관리(CRM) 서비스를 개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해기사면허 소지자들에게 사전에 면허갱신 일자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해기사들은 해기 면허 만료 6개월전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갱신일자를 미리 통보받을 수 있어 만료 사실을 몰라 해기면허가 정지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서비스는 본인이 교육훈련을 신청하거나 해기사 시험을 응시할 때 기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된다. 또 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선원복지고용센터 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자동 통보된다.

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해양수산 정보조회를 하면 해기면허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해기사 면허는 국제해사기구(IMO) STCW 협약(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훈련에 관한 협약) 및 선박직원법에 의해 5년마다 갱신된다.